

학습영역	작품	작가	쪽수
유형 연습④ 고전산문	흥부전(8)	작자 미상	2
실전 모의고사① 고전산문	윤지경전(7)	작자 미상	6
실전 모의고사② 고전산문	화산중봉기(7)	작자 미상	10
실전 모의고사② 고전산문	서파삼우설(10)	유방선	14
실전 모의고사③ 고전산문	저생전(8)	이첨	19
실전 모의고사④ 고전산문	통곡하기에 좋은 장소(4)	박지원	23
실전 모의고사④ 고전산문	정수정전(8)	작자 미상	26
실전 모의고사⑤ 고전산문	서동지전(8)	작자 미상	30
실전 모의고사⑤ 고전산문	두껍전(7)	작자 미상	34
유형 연습② 현대산문	봄봄(8)	김유정	38
유형 연습⑤ 현대산문	공동 경비 구역 JSA(5)	박상연 원작 박찬욱 외 각색	42
실전 모의고사① 현대산문	타인의 방(10)	최인호	46
실전 모의고사① 현대산문	국제시장(0)	박수진 각본 윤제국 각색	-
실전 모의고사② 현대산문	복망, 멀고도 고적한 곳(0)	황석영	-
실전 모의고사③ 현대산문	영월행 일기(9)	이강백	51
실전 모의고사③ 현대산문	개구리(4)	김성한	57
실전 모의고사④ 현대산문	유자소전(8)	이문구	59
실전 모의고사⑤ 현대산문	포대령(0)	천승세	-
실전 모의고사⑤ 현대산문	시냇가에서(0)	박완서	-

[01~0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1년 고1 6월 / 해설 1~2쪽)

“여보 마누라, 슬퍼 마오. 가난 구제는 나라에서도 못한다 하니 형님인들 어찌하시겠소? 우리 부부가 품이나 팔아 살아갑시다.”

홍부 아내 이 말에 순종하여 서로 나가서 품을 팔기로 하였다. 홍부 아내는 방아 짚기, 술집의 술 거르기, 초상난 집 제복 짓기, 대사 치르는 집 그릇 닦기, 굶하는 집의 떡 만들기, 얼음이 풀릴 때면 나물 캐기, 봄보리 갈아 보리 놓기. 홍부는 이월 동풍에 가래질하기, 삼사월에 부침질하기, 일등 전답의 무논 갈기, 이 집 저 집 돌아가며 이영 엮기 등 이렇게 내외가 온갖 품을 다 팔았다. 그러나 역시 살기는 막연하였다.

(중략)

큰 구렁이가 제비 새끼를 모조리 잡아먹고 남은 한 마리가 허공으로 뚝 떨어져 피를 흘리며 발발 떠는 것이었다. 홍부 아내가 명주실을 급히 찾아내어 주니 홍부는 얼른 받아 제비 새끼의 상한 다리를 곱게 감아 매어 찬 이슬에 엮어 두었다. 그랬더니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이리하여 십여 일이 지나자 상한 다리가 제대로 소생되어 날아다니게 되니, 줄에 앉아 재잘거리며 울고 등등실 떠서 날아갈 때 소상강 기러기는 왔노라 하고 강남 가는 제비는 가노라 하직하는 것이었다.

이리하여 제비가 강남 수천 리를 훨훨 날아가서 제비 왕을 뵈러 가니 제비 왕이 물었다.

“경은 어찌하여 다리를 절며 들어오느냐?”

“신의 부모가 조선국에 나가 홍부의 집에 갇혔었는데 뜻밖에 큰 구렁이의 화를 입어 다리가 부러져 죽을 것을 홍부의 구조를 받아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홍부의 가난을 면케 해주신다면 소신은 그 은공을 만분의 일이라도 갚을까 합니다.”

“홍부는 과연 어진 사람이다. 공 있는 자에게 보은함은 군자의 도리이니, 그 은혜를 어찌 아니 갚으랴? 내가 박씨 하나를 줄 테니 경은 가지고 나가 은혜를 갚도록 하라.”

제비가 왕께 감사드리고 물러 나와서 그러저럭 그 해를 넘기고 이듬해 춘삼월을 맞으니 모든 제비가 타국으로 건너갈 때였다. 그 제비 허공 중천에 높이 떠서 박씨를 입에 물고 너울너울 자주자주 바빠 날아 홍부네 집 동네를 찾아들어 너울너울 넘노는 거동은 마치 북해 흑룡이 여의주를 물고 오색구름 사이로 넘는 듯, 단산의 어린 봉이 대씨를 물고 오동나무에서 노니는 듯, 황금 같은 피꼬리가 봄빛을 띠고 수양버들 사이를 오가는 듯하였다. 이리 기웃저리 기웃 넘노는 거동을 홍부 아내가 먼저 보고 반긴다.

“여보, 아이 아버지, 작년에 왔던 제비가 입에 무엇을 물고 와서 저토록 넘놀고 있으니 어서 나와 구경하오.”

홍부가 나와 보고 이상히 여기고 있으려니 그 제비가 머리 위를 날아들며 입에 물었던 것을 앞에다 떨어뜨린다. 집어 보니 한가운데 ‘보은(報恩)박’이란 글 석 자가 쓰인 박씨였다.

그것을 울타리 밑에 터를 닦고 심었더니 이삼일에 싹이

나고, 사오일에 순이 뻗어 마디마디 잎이 나고, 즐기마다 꽃이 피어 박 네 통이 열린 것이다. 추석날 아침이었다. 배가 고평 죽겠으니 영근 박 한 통을 따서 박속이나 지저 먹자하고 박을 따서 먹줄을 반듯하게 굶고서 홍부 내외는 톱을 마주 잡고 컸다. 이렇게 밀거니 당기거니 커서 푹 타 놓으니 오색 채운이 서리며 청의동자 한 쌍이 나오는 것이었다.

원손에 약병을 들고 오른손에 쟁반을 눈 위로 높이 받쳐 들고 나온 그 동자들은,

“이것을 값으로 따지면 억만 냥이 넘으니 팔아서 쓰십시오.”라고 말하며 홀연히 사라져 버렸다.

박 한 통을 또 따놓고 슬근슬근 푹질이다. 쓱삭 쿵각 푹 타 놓으니 속에서 온갖 세간불이가 나왔다.

또 한 통을 따서 먹줄 쳐서 톱을 걸고 푹 타 놓으니 순금 계가 하나 나왔다. 금거북 자물쇠를 채웠는데 열어 보니 황금, 백금, 밀화, 호박, 산호, 진주, 주사, 사향 등이 가득 차 있었다. 그런데 쏟으면 또 가득 차고 또 가득 차고 해서 밤낮 쏟고 나니 큰 부자가 된 것이다.

다시 한 통을 푹 타 놓으니 일등 목수들과 각종 곡식이 나왔다. 그 목수들은 우선 명당을 가려 터를 잡고 집을 지었다. 그다음 또 사내종, 계집종, 아이종이 나오며 온갖 것을 여기저기 다 쌓고 법석이니 홍부 내외는 좋아하고 춤을 추며 돌아다녔다.

이리하여 홍부는 좋은 집에서 즐거움으로 세월을 보내게 되었다.

이런 소문이 놀부 귀에 들어가니,

“이놈이 도둑질을 했다? 내가 가서 옥대기면\* 반재산을 뺏어 낼 것이다.”

벼락같이 건너가 닥치는 대로 살림살이를 처부수는 것이었다.

한참 이렇게 소란을 피우고 있을 때 마침 출타 중이던 홍부가 들어왔다.

“네 이놈, 도둑질을 얼마나 했느냐?”

“형님 그 말씀이 웬 말씀이요?”

홍부가 앞뒷일을 자세히 말하자, 그럼 네 집 구경을 자세히 하자고 놀부가 나섰다.

홍부는 형을 데리고 돌아다니며 집 구경을 시키는데 놀부가 재물이 나오는 화초장\*을 달라고 했다. 그러고는 홍부가 화초장을 하인을 시켜 보내주겠다는 것도 마다하고 스스로 짚어지고 가서 집에 이르니 놀부 아내는 눈이 휘둥그레진다. 그리고 그 출처와 홍부가 부자가 된 연유를 알게 되자,

“우리도 다리 부러진 제비 하나 만났으면 그 아니 좋겠소?”라며, 그해 동지선달부터 제비를 기다렸다.

-작자 미상, 「홍부전」-

\*옥대기면: 난폭하게 욕박질러 협박하면.

\*화초장: 문짝에 유리를 붙이고 화초 무늬를 채색한 옷장.

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물의 반복적 행위와 결과를 나열하여 극적 효과를 높이고 있다.
- ② 서술자를 작중 인물로 설정하여 사건의 현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 ③ 전기(傳奇)적인 요소를 활용하여 주인공의 영웅성을 부각하고 있다.
- ④ 권위 있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여 인물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있다.
- ⑤ 꿈과 현실을 교차적으로 서술하여 사건을 입체적으로 구성하고 있다.

2.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흥부 부부는 먹고 살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였다.
- ② 박에서 나온 묵수들은 흥부 부부를 위해 좋은 터에 집을 지어 주었다.
- ③ 흥부는 자신이 치료해 준 제비가 박씨를 물고 온 사실을 알아채고 그를 매우 반겼다.
- ④ 제비는 다리를 다친 사연을 제비 왕에게 말하며 흥부에게 받은 은혜를 갚기를 원하였다.
- ⑤ 놀부는 흥부의 집을 방문하기 전까지 흥부가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를 정확히 알지 못했다.

3.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조선 후기에는 잦은 자연재해와 관리들의 횡포 때문에 백성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서 창작된 「흥부전」은 최소한의 의식주라도 해결하고 싶었던 당시 백성들의 소망이 반영된 작품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당시의 백성들은 성품이 착한 흥부 내외가 초월적인 존재의 도움으로 가난을 벗어나는 장면을 통해 대리만족을 얻기도 하였다. 하지만 착한 흥부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환상성(幻想性)을 띠고 있다는 점은 가난이 실제 현실에서는 극복되기 어렵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 ① 흥부 내외가 ‘온갖 품을 다 팔았’지만 여전히 ‘살기는 막연’했던 것은 창작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관련이 있겠군.
- ② 흥부 집을 찾아간 놀부가 ‘화초장’을 ‘스스로 짊어지고’ 간 것은 가난을 극복하기 위한 백성들의 노력으로 볼 수 있겠군.
- ③ ‘제비 왕’이 제비에게 준 ‘박씨’를 통해 흥부가 가난을 벗어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초월적 존재의 도움을 확인할 수 있겠군.
- ④ 흥부가 타는 박 속에서 ‘세간불이’와 ‘각종 곡식’이 나온 것은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던 백성들의 소망과 관련이 있겠군.
- ⑤ ‘사오일’ 만에 열린 박에서 ‘순금 궤’가 나와 부자가 된다는 점에서 흥부에게 주어진 보상이 환상성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겠군.

4. 윗글의 놀부를 평가하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인물이군.
- ②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인물이군.
- ③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파하는 인물이군.
- ④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는 인물이군.
- ⑤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도 보지 않는 인물이군.

[05~0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4년 고3 6월 / 해설 2~3쪽)

홍부 마음 인후하여 청산유수와 곤륜옥결이라. 성덕을 본받고 악인을 저어하며 물욕에 탐이 없고 주색에 무심하니 마음이 이러하매 부귀를 바랄쏘냐? 홍부 아내 하는 말이,

[A] “애고 여복소. 부질없는 청렴 맘소. 안자의 가난함은 주린 염치로 서른에 일찍 죽고, 백이숙제는 주린 염치로 청루 소년이 웃었으니, 부질없는 청렴 말고 저 자식들 굶겨 죽이겠으니, 아주버님네 집에 가서 쌀이 되나 벼가 되나 얻어 읍소.”

홍부가 하는 말이,

“형님이 음식 끝을 보면 사촌을 몰라보고 똥 싸도록 때리는데, 그 때를 뉘 아들놈이 맞는단 말ियो?”

“애고 동냥은 못 준들 쪽박조차 깨질쏘냐. 맞으나 아니 맞으나 쏘아나 본다고 건너가 봅소.”

홍부 이 말을 듣고 형의 집에 건너갈 제, 치장을 볼작시면, ㉠편자 없는 헌 망건에 박쪼가리 관자 달고 물젼줄로 당끈 달아 대가리 터지게 동이고, 깃만 남은 중치막, 동강이은 헌 술띠를 흥복통에 눌러 띠고, 떨어진 헌 고의에 칙노끈 대넒 매고, 헌 짚신 감발하고, 세살 부채 손에 쥐고, 서 홉들이 오망자루 꿈무늬에 비스 차고, 바람맞은 병인같이, 잘 쓰는 대비같이, 어스비스 건너 달아 형의 집에 들어가서 전후좌우 바라보니, 앞노적, 뒷노적, 명에 노적 담불담불 쌓였으니, 홍부 마음 즐거우나 놀부 심사 무거하여 형제끼리 내외하여 구박이 태심하니 홍부가 하릴없어 뜰아래서 문안하니 놀부가 묻는 말이,

“네가 된고?”

“내가 흥부요.”

“흥부가 뉘 아들인가?”

“애고 형님, 이것이 웬 말ियो? 비읍니다. 형님 전에 비읍니다. 세 끼 굶어 누운 자식 살려 낼 길 전혀 없으니 쌀이 되나 벼가 되나 양단간에 주시면 품을 판들 못 갚으며 일을 한들 못 갚을까. 부디 옛일을 생각하여 사람을 살려 주오.”

[B] 애걸하니, 놀부 놈의 거동 보소. 성난 눈을 부릅뜨고 불을 치며 호령하되,

“너도 염치없다. 내 말을 들어 보아라. ‘하늘은 녹없는 사람을 내지 않으며, 땅은 이름 없는 풀을 내지 않는다.’네 복을 누굴 주고 나를 이리 보채느냐? 쌀이 있다 한들 너 주자고 노적 혈며, 벼가 많이 있다 한들 너 주자고 섬을 혈며, 돈이 많이 있다 한들 께에 가득 든 것을 문을 열랴.”

[중간 줄거리 : 어렵게 살던 흥부는 어느 날 구렁이의 습격을 받아 다리가 부러진 제비 새끼를 구해 주고 박씨를 얻어 큰 부자가 된다.]

놀부 놈의 거동 보소. 동지선달부터 제비를 기다린다. 그물 막대 둘러매고 제비를 몰러 갈 제, 한 곳을 바라보니

한 짐승이 떠서 들어오니 놀부 놈이 보고,

“제비 인제 온다.”

하고 보니, 태백산 갈가마귀 차들도 못 얻어먹고 주려 청천에 높이 떠 갈곡갈곡 울고 가니, 놀부 눈을 멀정게 뜨고 보다가 하릴없어 동네 집으로 다니면서 제비를 제 집으로 몰아들이되 제비가 아니 온다.

그달 저 달 다 지내고 삼월 삼일 다다르니 강남서 나온 제비 옛집을 찾으려 하고 오락가락 넘놀 적에 놀부 사면에 제비 집을 지어 놓고 제비를 들이모니, 그중 팔자 사나운 제비 하나가 놀부 집에 흠을 물어 집을 짓고 알을 낳아 안으려 할 제, 놀부 놈이 주야로 제비 집 앞에 대령하여 가끔가끔 만져 보니 알이 다 꿸고 다만 하나 깨었는지라. 날기 공부 힘쓸 제 구렁 배암 아니 오니 놀부 민망 답답하여 ㉡제 손으로 제비 새끼를 잡아 내려 두 발목을 자끈 부러뜨리고 제가 깜짝 놀라 이른 말이, “가련하다. 이 제비야.” 하고 조기 꺾질을 얻어 찬찬 동여 뱃놈의 닷줄 감듯 삼층 열레 연줄 감듯 하여 제 집에 얹어 두었더니, 십여 일 뒤에 그 제비가 구월 구일을 당하여 두 날개를 펼쳐 강남으로 들어가니 강남 황제 각처 제비를 점고할 제, 이 제비가 다리 절고 들어와 복지하니, 황제 제신으로 하여금,

“그 연고를 사실하여 아뢰라.”

하시니, 제비 아뢰되,

“작년에 웬 박씨를 내어 보내어 흥부가 부자 되었다 하여 그 형 놀부 놈이 나를 여차여차하여 절뚝발이가 되게 하였사오니, 이 원수를 어찌하여 갚고자 하나이다.”

[C]

황제가 이 말을 들으시고 대경하사 가라사대,

“이놈 이제 전담 재물이 여유롭되 동기를 모르고 오류에 벗어난 놈을 그저 두지 못할 것이요, 또한 네 원수를 갚아 주리라.”

하고 박씨 하나를 ‘보수표(報讐瓢)\*라 금자로 새겨 주더라.

- 작자 미상, 흥부전

\* 보수표 : 원수를 갚는 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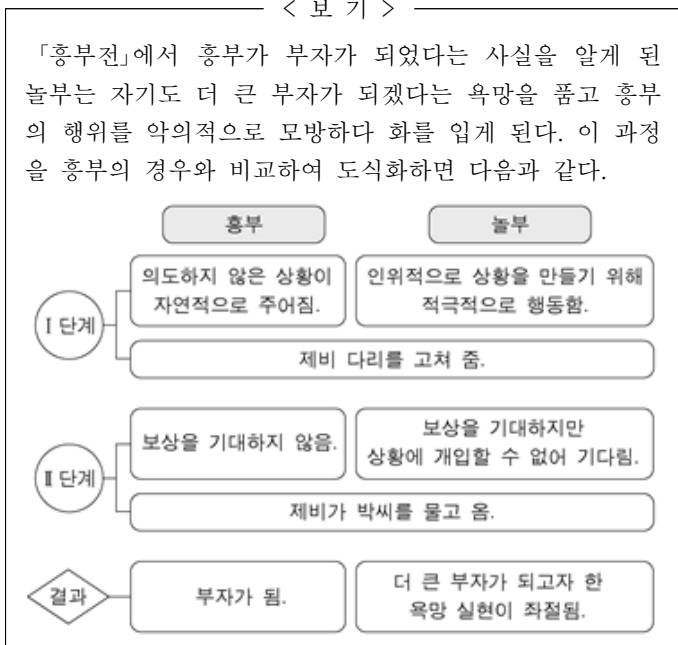
5.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운문체를 사용하여 인물 사이의 갈등을 부각하고 있다.
- ② 현재와 과거를 교차하여 장면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 ③ 열거의 방식으로 인물의 외양을 해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④ 배경 묘사를 통해 밝고 역동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⑤ 사건을 요약적으로 제시하여 서사를 빠르게 전개하고 있다.

6. [A]~[C]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서는 서술자의 서술과 등장인물의 대화를 통해 흥부의 처지와 성품을 드러내고 있다.
- ② [B]에서 놀부를 ‘놀부 놈’으로 서술하는 부분에는 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평가가 드러나 있다.
- ③ [C]에서 동물들이 대화하는 장면은 우화적 공간에서 서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 ④ [A]에서 흥부와 놀부 아내의 대화는 [B]에서 일어나는 흥부와 놀부의 갈등 상황을 예고하고 있다.
- ⑤ [B]에 나타난 놀부의 언행은 [C]에서 제비가 황제에게 놀부를 고발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7.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동지선달’부터 올 리 없는 제비를 찾는 놀부의 행동은 <보기>의 ‘I단계’에 속하는 것으로, 욕망 실현을 위한 놀부의 조급성을 보여 주는군.
- ② ‘갈가마귀’를 제비로 착각하는 놀부의 모습은 <보기>의 ‘I단계’에 속하는 것으로, 제비가 아닌 다른 새들을 몰아내는 놀부의 적극적 행동을 보여 주는군.
- ③ ‘삼월 삼일’에 제비를 들이모는 놀부의 행위는 <보기>의 ‘I단계’에 속하는 것으로, 인위적으로 상황을 만들어 가는 악의적인 모방자의 모습을 보여 주는군.
- ④ ‘구월 구일’에 제비가 강남으로 들어가는 상황은 <보기>의 ‘II단계’에 속하는 것으로, 상황에 개입할 수 없는 놀부가 욕망 실현을 위해서 기다릴 수밖에 없음을 보여 주는군.
- ⑤ ‘보수표’가 제비에게 주어지는 상황은 <보기>의 ‘II단계’에 속하는 것으로, 놀부의 기대와는 달리 그의 욕망 실현이 좌절될 것임을 보여 주는군.

8. ㉠에 대한 독자의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기가 제비 다리를 부러뜨려 놓고 깜짝 놀라다니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는 격이군.
- ② 자기 실수로 제비 다리가 부러졌는데 저런 말을 하다니 방귀 똥 놔서 성내는 격이군.
- ③ 자기가 구렁이를 대신하여 제비 다리를 부러뜨린 것을 보니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 격이군.
- ④ 자기가 제비 다리를 부러뜨려 놓고 치료를 해 주며 구해 주는 척하더니 병 주고 약 주는 격이군.
- ⑤ 자기가 제비 다리를 부러뜨리고 도리어 위로하는 말을 하는 것을 보니 말 한마디에 천 냥 빚을 갚는 격이군.

# 정답 및 해설

## • 산문 영역 •

### 정답

1	①	2	③	3	②	4	③	5	③
6	⑤	7	②	8	④	9	②	10	⑤
11	④	12	②	13	⑤	14	③	15	③
16	④	17	④	18	②	19	⑤	20	①
21	④	22	⑤	23	①	24	⑤	25	③
26	②	27	②	28	④	29	④	30	⑤
31	⑤	32	②	33	①	34	⑤	35	②
36	③	37	④	38	②	39	④	40	②
41	②	42	⑤	43	①	44	④	45	⑤
46	④	47	①	48	①	49	③	50	④
51	③	52	③	53	①	54	②	55	⑤
56	③	57	④	58	①	59	③	60	⑤
61	①	62	②	63	②	64	②	65	②
66	③	67	⑤	68	⑤	69	④	70	①
71	⑤	72	②	73	①	74	⑤	75	④
76	⑤	77	⑤	78	⑤	79	⑤	80	②
81	③	82	①	83	③	84	④	85	⑤
86	②	87	③	88	①	89	③	90	②
91	④	92	②	93	②	94	④	95	②
96	②	97	⑤	98	①	99	③	100	③
101	④	102	⑤	103	④	104	②	105	⑤
106	①	107	④	108	⑤	109	⑤	110	①

### 해설

#### 1. [출제의도] 서술상의 특징 파악하기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① 흥부 부부가 박을 타는 반복적인 행위와 그 결과로 박에서 나온 물건들을 나열하여 흥부 가족이 부자가 되는 모습을 극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서술자는 작품 외부에서 인물과 사건을 서술하고 있으므로 서술자를 작중 인물로 볼 수 없다.
- ③ 제비가 은혜를 갚고, 박에서 재물이 쏟아지는 등 전기(傳奇)적인 요소가 일부 드러나지만 이를 통해 주인공의 영웅적인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는다.
- ④ ‘제비 왕’이라는 권위 있는 인물이 등장하지만 ‘제비 왕’이 인물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부분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 ⑤ 꿈 속 장면은 서술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꿈과 현실을 교차하여 서술한다고 볼 수 없다.

#### 2. [출제의도] 작품의 세부 내용 확인하기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③ 제비가 흥부 앞에 박씨를 떨어뜨리기 전까지 흥부는 제비가 무엇을 물고 왔는지 알지 못했다. 따라서 제비가 박씨를 물고 왔다는 사실을 알아채고 흥부가 제비를 반겼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흥부 부부는 ‘방아 찧기’부터 ‘이 집 저 집 돌아가며 이영 엮기’까지 온갖 품을 다 팔았다. 따라서 흥부 부부가 먹고 살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다.
- ② 박에서 나온 목수들이 ‘명당을 가려 터를 잡고 집을 지었다’. 따라서 목수들이 흥부 부부를 위해 좋은 터에 집을 지어 주었음을 알 수 있다.
- ④ 제비는 제비 왕에게 ‘흥부의 구조를 받아 살아서 돌아왔’으며 ‘은공을 만분의 일이라도 갚’고 싶어 하였다. 따라서 제비는 흥부에게 은혜 갚기를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놀부는 흥부가 부자가 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이놈이 도둑질을 했나?’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그는 흥부의 집을 방문하기 전까지는 흥부가 부자가 된 이유를 정확히 알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 3. [출제의도] 외적 증거에 따라 작품 감상하기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② 놀부가 재물이 나오는 화초장을 직접 짚어지고 간 것은 자신의 집으로 화초장을 빨리 옮기고 싶은 욕심 때문이므로 이를 가난을 극복하기 위한 백성들의 노력으로 볼 수는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흥부 부부가 온갖 일을 하지만 여전히 생활이 어려웠다는 점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가난을 벗어날 수 없었던 조선 후기의 시대적 배경을 엿볼 수 있다.
- ③ 흥부는 제비 왕이 전해 준 박씨를 심어 큰 부자가 되었으므로 초월적인 존재인 제비 왕의 도움으로 흥부가 가난을 극복했음을 알 수 있다.
- ④ 흥부가 타는 박에서 의식주와 관련된 세간불이와 곡식이 나오는데, 이 장면에서 당시 백성들의 소망이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 ⑤ 흥부가 심은 박씨에서 사오일 만에 박이 열리고, 박 속에서 순금 켜가 나오는 장면에서 흥부가 받은 보상의 환상성을 확인할 수 있다.

4. [출제의도] 속담 활용하여 인물 평가하기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③ 윗글에서 놀부는 흥부가 부자가 된 것을 질투하여 심술을 부리는 인물로 묘사되어 있으므로, 남이 잘되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한다는 뜻을 가진 속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를 활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불난 집에 부채질한다.’는 속담은 남의 재앙을 더욱 커지게 만드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속담이다.
- ②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은 일이 잘못된 후에 손을 써봐야 의미가 없다는 뜻이다.
- ④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한다.’는 속담은 제 뜻을 지키지 못하고 이익이나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언행을 바꾸는 사람을 비꼬아 이르는 속담이다.
- ⑤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도 보지 않는다’는 속담은 자기의 능력 밖의 일은 처음부터 욕심을 내지 않는 것이 좋다는 뜻이다.

5. [출제의도] 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③ ㉠은 놀부의 집에 가는 흥부의 행동과 차림새 등 외양을 묘사한 부분이다. ㉠의 바로 앞 구절은 ‘치장을 볼작시면’이다. 그러므로 ㉠은 흥부의 ‘치장(외양)’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의 내용은 머리에 두른 망건, 도포의 한 종류인 중치막, 도포 끈인 술띠, 바지(고의)와 대님, 짚신, 부채, 자루의 모양과 흥부가 걸어가는 모습 등인데, 이를 차례로 열거하며 묘사하고 있다. 그리고 이 내용이 해학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원래 있어야 할 편자가 없는 망건에, 보통 금·옥·뼈·뿔로 만드는 관자 대신에 박쪼가리로 만든 관자

를 달고 있다. 게다가 망건 윗부분의 당근은 원래 말총으로 하는데 말총이 아닌 물렛줄로 하였다. 이렇게 격식에도 안 맞고 우스운 모양의 망건을 흥부는 ‘대가리 터지게’동여매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흥부가 입은 중치막은 깃만 남아 있고, 술띠는 동강을 이어 놓았으며, 고의는 떨어졌고 대님은 쪼 노끈인데다가 감발을 하고 흰 짚신을 신은 모습이다. 이렇게 입고는 세살부채를 쥐고 불품없이 생긴 자루를 꿈무늬에 차고 있다. 그런 상태로 걸어가는 모습이 ‘바람맞은 병인’같고 ‘잘 쓰는 대비(빛자루)’같은데 게다가 이리저리 기웃거리며 망설이는 모양으로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부터 인물의 외양을 해학적으로 묘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은 내용 전체가 흥부의 외양 묘사이기 때문에 인물 사이의 갈등이 드러나지 않는다.
- ② ㉠은 전체가 현재이기 때문에 현재와 과거가 교차한다고 볼 수 없다.
- ④ ㉠은 인물의 외양을 묘사했을 뿐 배경을 묘사하지는 않았다.
- ⑤ ㉠은 흥부의 외양을 묘사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건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따라서 서사 전개의 속도는 느낄 수 없다.

6. [출제의도] 작품의 내용 파악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C]에서 제비가 ‘황제’에게 놀부를 고발하는 근거가 되는 부분은 [B]에 나타난 놀부의 언행이 아니라 지문의 밑줄 친 ㉠에 나타난 놀부의 행위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A]의 첫 문단은 서술자의 서술을 통해서 흥부의 성품을 드러낸 부분이다. 그리고 아내와 흥부의 대화를 통해 흥부가 매우 가난한 처지에 놓여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 ② ‘놈’이라는 단어는 남자를 낮잡아 이르는 말이다. 이를 통해 서술자가 놀부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③ ‘우화’는 인격화한 동식물이나 기타 사물을 주인공으로 하여 그들의 행동 속에 풍자와 교훈의 뜻을 나타내는 이야기이다. [C] 부분은 강남으로 돌아간 제비가 황제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으로 바로 ‘강남’의 황제가 있는 곳이 우화적 공간에 해당된다.
- ④ [B]에서 흥부는 놀부에게 양식을 꾸어 달라고 애걸하고 놀부는 거절하는 갈등의 상황이 나타난다. [A]의 ‘형님이 음식 끝을 보면 ~ 맞는단 말이오?’와 ‘맞으나 건너가 밥소’등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흥부의 놀부네 방문이 [B]와 같은 갈등 상황이 될 것임을 [A]에서 예고하고 있다.

7. [출제의도] 감상의 적절성 평가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놀부는 한 짐승(갈가마귀)이 떠서 들어오는 것을 보고 “제비 인제 온다.”고 하면서 기대를 하지만 ‘한 짐승(갈가마귀)’는 청천에 높이 떠서 울고 가 버린다. 놀부는 이를 보다가 하릴없어, 즉 달리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 제비를 자기 집으로 몰아들이려고 한다. 따라서 답지에 제시된 ‘제비가 아닌 다른 새들을 몰아내는’이라는 ②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동지설달’은 겨울이기 때문에 제비가 올 리가 없다. 올 리 없는 제비를 기다리는 것은 그만큼 마음이 급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동지설달부터 제비를 기다리는 놀부의 행동은 인위적으로 상황을 만들기 위한 행동에 속하며, 이는 ‘더 큰 부자가 되겠다는’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놀부의 조급성을 보여준다.
- ③ ‘삼월 삼일’이 되어 제비가 돌아와 옛집을 찾으려 하니 놀부가 사면에 제비집을 지어 놓고 제비를 들이몬다. 이 행위는 인위적으로 상황을 만들기 위한 행동에 속하며, 이 행동은 <보기>에 따르면 ‘악의적으로 모방’하는 것에 해당한다.
- ④ ‘구월 구일’이 되어 제비가 강남으로 들어가는 상황은, 놀부 입장에서는 제비가 박씨를 물고 오기를 기다리는 시간이다. 이는 놀부가 보상을 기대하지만 상황에 개입할 수 없어서 기다리는 상황, 즉 <보기>의 II단계에 해당된다.
- ⑤ ‘보수표’는 지문의 뜻풀이에 나온 것처럼 ‘원수를 갚는 박’으로 원수를 갚아 달라는 제비의 말에 황제가 제비에게 새겨 준 것이다. 이는 더 큰 부자가 되겠다는 놀부의 욕망에 반하는 것이다. 놀부가 이 상황에 개입할 수 있었다면 ‘보수표’라는 금자가 새겨진 박씨를 심어서 키운 후 타는 행동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보수표’가 제비에게 주어지는 상황은 II단계에 해당하며 더 큰 부자가 되고자 하는 놀부의 욕망이 실현될 수 없을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8. [출제의도] 관용적 표현의 이해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병 주고 약 준다.’는 속담은 ‘남을 해치고 나서 약을 주며 그를 구원하는 체한다는 뜻으로, 교활하고 음흉한 자의 행동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따라서 제비 다리를 일부러 부러뜨려 놓고(=병 주고) 치료를 해 주며 구해 주는 척하는(=약 주고) 놀부의 행동에 적절한 속담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아무리 놀려 지내는 미천한 사람이나, 순하고 좋은 사람이라도, 너무 업신여기면 가만 있지 않는다.’는 말이다. 제비 다리를 부러뜨린 놀부는 ‘놀려 지내는 미천한’ 존재가 아니라 힘없는 제비에게 가해를

한 것이므로 이 상황에 적절하지 않은 속담이다.

- ② ‘방귀 똥 높이 성낸다.’는 ‘자기가 방귀를 똥고 오히려 남보고 성낸다는 뜻으로, 잘못을 저지른 쪽에서 오히려 남에게 성냄을 비꼬는 말.’이다. “가련하다, 이 제비야.”라고 말한 것은 가식적으로 한 말이지 제비에게 성을 내거나 비꼰 것은 아니다.
- ③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속담은 ‘강한 자들끼리 싸우는 통에 아무 상관도 없는 약한 자가 중간에 끼어 피해를 입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구렁이를 대신하여 제비 다리를 부러뜨린 놀부가 ‘약한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상황에 적절하지 않은 속담이다.
- ⑤ ‘말 한마디에 천 냥 빚을 갚는다.’는 속담은 ‘말만 잘하면 어려운 일이나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해결할 수 있다는 말.’이다. “가련하다, 이 제비야.”라고 말한 것은 가식적으로 한 말일 뿐 어려운 일이나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해결하는 말은 아니다. 또한 다리가 부러진 제비가 황제에게 받은 박씨는 원수를 갚는 박씨이므로 어려운 일이나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 상황에 적절하지 않은 속담이다.